



새로운 조경수 91

아로니아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1. 종류와 생육특성

아로니아는 장미과(*Rosaceae*) 마가목속(*Sorbus*)의 아리아아속(*Aria* 亞屬)에 속하는 나무로 지구의 북반구에 3종이 생육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는 수종은 붉은 아로니아

(Red Chokeberry)로 미국에서 도입되었다.

내한력(耐寒力), 내공해력(耐公害力), 내건력(耐乾力)은 강하고 내음력(耐陰力)은 약한 편이어서 생육적지는 개방지(開放地)로서 햇볕이 잘 들고 토심이 깊고 비옥한 사질양토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생육이 가능한 수종이다.



▲ 붉은 초롱꽃철쭉의 꽃과화서



아로니아

〈표1〉 아로니아의 종류

| 국 명 | 학 명 | 일 본 명 | 영 명 |
|----------|----------------------------------|-------|-------------------|
| 붉은 아로니아 | <i>Aronia arbutifolia</i> SPACH. | アロニア | Red Chokeberry |
| 자주색 아로니아 | <i>Aronia atropurpurea</i> BRIT. | „ | Purple Chokeberry |
| 검은 아로니아 | <i>Aronia melanocarpa</i> SPACH. | „ | Black Chokeberry |

〈표 2〉 수종별 특성

| 수 종 명 | 가지와 잎 | 꽃과 열매 | 분 포 지 역 | 생 육 입 지 |
|----------|---|--|------------|---|
| 붉은 아로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2~3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관목으로 직립성 • 잎은 호생, 장타원형 또는 난형, 잎 뒷면은 회색이고 털이 있으며 잎의 길이는 3~8cm •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5월에 연한 붉은 빛이 도는 백색 꽃이 피며 꽃의 지름 8~11mm임. • 총상화서로 한개의 화서에 많은 꽃이 피. • 열매는 둥글고 가을에 붉게 익으며 광택이 없고 지름이 6mm정도 되는 이과(梨果)임. • 붉은 열매가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음. | • 미국 남·북지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볕이 잘드는 개방지로 토심이 깊고 비료분이 풍부한 사질양토 |
| 자주색 아로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4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관목으로 직립성 • 잎은 호생, 장타원형 또는 도난형, 잎 뒷면은 회백색이고 털이 있으며 잎의 길이는 5~9cm • 잎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5~6월에 백색으로 피며 꽃잎은 5개임. • 총상화서로 한개의 화서에 많은 꽃이 피. • 열매는 타원상원형이고 가을에 자주색으로 익으며 길이가 8mm정도임. • 1㎡당 종자 입수는 13만개, 1kg당 종자 입수는 26만개 | • 미국 남·북지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볕이 잘드는 개방지로 토심이 깊고 비료분이 풍부한 사질양토 |
| 검은 아로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1~2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관목으로 직립성 • 잎은 호생, 난형 또는 도난형, 잎 뒷면은 담녹색이고 털이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5월에 백색으로 피. • 화서는 총상화서로 한개의 화서에 여러개의 꽃이 피. • 열매는 광택이 나며 색깔은 흑색이고 지름은 6mm정도로 둥글다. | • 미국 전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볕이 잘드는 개방지로 토심이 깊고 비료분이 풍부한 사질양토 |





▲ 아로니아의 개화전경

2. 조경수로서 활용가치

아로니아는 5~6월에 긴 가지의 마디마다 착생하고 있는 짧은 가지 끝에 백색 꽃이 뭉쳐서 피어 있는 자태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질게 물든 붉은 단풍과 선홍색의 익은 열매가 아가지기하게 달려 있는 관경은 더욱 아름답다. 이와 같은 관상가치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경수로 활용해 온지가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시중의 화원이나 식물원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수종이다. 우리나라에는 도입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보급되지 않고 있지만 조경수로서의 전망이 밝은 수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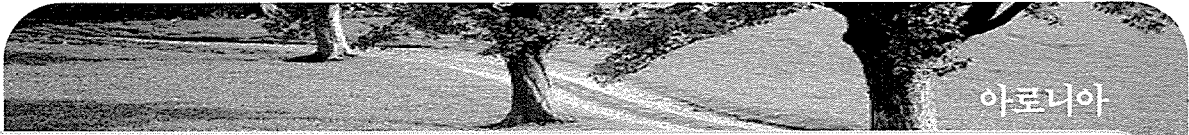
아로니아는 관목에다 직립성(直立性)이어서 생울타리 조성용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개방된 나지(裸地)에 집단으로 식재하여 지피식생(地皮植生)을 조성하는데에도 적합한 수종으로 4계절을 통하여 아름다운 환경의 변화를 누릴 수 있다.

3. 번식 및 양묘방법

아로니아의 번식은 일반적으로 종자에 의하여 번식하지만 여름 삼목으로도 번식이 가능하다. 종자에 의한 실생묘양성은 9~10월에 열매가 주홍색으로 완숙되기 전 담홍색 때 채취하여 3~4일간 물에 담귀 두었다 주물러서 과육



▲ 아로니아의 꽃과 화서




아로니아



▲ 아로니아의 결실전경

한 후 상단부에 2~3개의
잎만 남기고 전부 제거하
여 주고, 삽수 아래 부분은
예리한 칼로 비스듬히 단
칼에 잘라준다. m^2 당 삽목
본수는 300본 정도로 하고
삽목후에는 충분히 관수를
하고 비닐터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해가림을 설치하
여 삽목상이 건조하지 않
도록 수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삽수 채
취 시 수세가 왕성한 어린
나무가지나 맹아지(萌芽

枝)가 아니면 활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여
야 한다. 

(果肉)을 분리시켜 과육과 과피를 물로 씻어 제거
한 후 바로 직파(直播)를 하든가, 추진 모래와 섞
어서 저온저장 또는 노천매장을 하여두었다 이듬
해 봄 3월경에 파종한다. 파종시기가 늦으면 저
장상태에서 종자가 발아해서 못쓰게 되므로 파종
시기가 늦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m^2 당 파종
량은 6cc 또는 3g(780입)정도를 산파(散播)하면
파종 후 30일 정도면 발아가 완료된다. 발아율이
보통 40%정도 되므로 m^2 당 발아기대본수(發芽期
待本數)는 300본 정도 되고 득묘본수는 150본,
평균묘고(平均苗高)는 30cm 정도가 되며, 1년생
묘의 상체(床替)는 m^2 당 20~25본이 되게 한다.
채종시기가 늦어 열매가 과숙(過熟)하거나 한번
건조한 종자는 잘 발아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채취
및 종자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삽목묘양성에 있어서 삽수채취는 7~8월에 당
년지(當年枝) 또는 전년지(前年枝)를 약간 붙여서
채취하고, 삽수의 조제는 길이 10~15cm로 절단

